

## 군산영광여고,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랑의 라면 기탁

재학생들 추수감사절 맞아 십시일반 20박스 모아 전달

한정근 기자 / 2025-11-21 09:46:50



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(교장 송윤이)가 지난 20일 나운2동 ‘행복나눔 공유공간’에 사랑의 라면 20박스(65만 원 상당)를 기탁했다.

이번 기탁은 재학생들이 2025 추수감사 festival’를 통해 모은 라면을 사랑을 담아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게 됐다.

올해 영광여고 추수감사 Festiva’은 ▲감사UCC콘테스트 ▲감사쓰기 행사 ▲사진촬영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.

특히, ▲감사와 함께라면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이웃에게 나누고자 작게는 1봉에서 많게는 1박스까지 라면을 모았다.

송윤이 교장은 “감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발견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”라 “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감사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함양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기탁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“내가 가져온 1봉지의 라면이 쌓이고 쌓여 많은 양의 라면이 된 것 같다”라며 “지역사회 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”라고 밝혔다.

남귀우 나운2동장은 “매년 추수감사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내 곳곳에 사랑을 베풀 것을 알고 있었다”라며 “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라면은 관내 어려운 이웃과 위기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한정근 기자 (hjpg20012002@hanmail.net)

-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-